

5·18 묘지에 나무끼는 평화 기원 노란손수건

“5월영령이여 세계평화 이끄소서”

국립 5·18 민주묘지 내 추모관 앞 올리브 나무에는 17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 내 추모관 앞 올리브 나무에 참배객들이 17일 오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노란 손수건을 매달고 있다.

“광주정신 계승 화합의 지구촌으로” 참배객 염원 올리브나무에 매달아

국립 5·18 민주묘지 내 추모관 앞 올리브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는 참배객들이 17일 오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노란 손수건을 매달고 있다.

있는 것이다. 빛고를 광주가 5·18 민주항쟁 27주년을 맞아, 그간의 슬픔과 한을 '세계평화의 메카'로 거둬들이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는 '5·18 민주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위원회'와 '광주국제교류센터(대표 윤장현)'가 '미얀마·미얀마를 기억하는 날' 행사를 갖고 군부독재정권의 인권 탄압에 시달리는 미얀마 돕기 모금도 한다.

같은 장소에서는 '5·18 민주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위원회'와 '광주국제교류센터(대표 윤장현)'가 '미얀마·미얀마를 기억하는 날' 행사를 갖고 군부독재정권의 인권 탄압에 시달리는 미얀마 돕기 모금도 한다.

“여고생 등 3명 계엄군에 성폭행 당했다”

정신질환 후유증...유족회 진상조사 착수

1980년 5월 당시 귀가 중이던 여고생과 회사원 등 처녀 3명이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있었다. 박양은 지난 1990년 '5·18 민주화운동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대상자(장애 1급)로 선정돼 2억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나 이듬해 퇴원 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1986년 12월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했다. 유씨는 90년 보상금 대상자(상이 후 사망)로서 1억5천만원을 받았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나 이듬해 퇴원 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1986년 12월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했다. 유씨는 90년 보상금 대상자(상이 후 사망)로서 1억5천만원을 받았다.

문인화 외 전부문 수사 확대

미술대전 비리...광주 전남 미술계 파문 확산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 선정에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문인화 외에 다른 부문에도 입상을 조건으로 급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17일 밝혔다.

남 출신 미술인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러나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미술협회' 전 이사장 하모(54)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전남예총에서 지난해 공모한 '전남도미술대전'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기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품비리 퇴직 우울증 중학교 前행정실장 자살

신설학교 남품비리에 연루돼 형사 처벌과 함께 퇴직당한 광주 W중 전 행정실장 윤모(여·47)씨가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들은 윤씨가 사법처리를 받은 이후 비판해 왔고, 최근에는 심한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으며, 3~4일 전에도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했다.

'사람잡은' 소방교육...학부모 2명 추락사

17일 오전 11시45분께 서울 중랑구 목동 원목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정모(여·41)씨 등 학부모 3명이 소방교육을 받던 중 고가사다리차에서 떨어져 정씨 등 2명이 숨지고 오모(여·36)씨는 크게 다쳤다.

떨어졌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사다리차와 바스켓을 연결하는 와이어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바스켓이 뒤집어져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5·18행사위, 反FTA 시위 자제 요청

'5·18 민주항쟁 제27주년 기념행사위원회'(위원장 이흥길·이하 행사위)는 '한미 FTA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광동대교 허연·이하 운동본부) 측에 "18일 5·18 구 묘역에서 열릴 '한미 FTA 무효, 노무현 대통령 연담 투쟁' 행사를 평화적으로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운동본부 측은 이에 대해 "기념식을 방해할 생각은 없고, 행사가 끝난 뒤 공개연담을 요구할 것"이라며 "만약 경찰이 이를 제지할 경우 마찰이 우려돼 '과격할 시위를 하지 말자'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니원침 (7212) 김종두



Advertisement for KCC construction services, including DS 건설(주) and (주)본드나라.

'광주 필름' 27년만의 발굴 무산

○5·18 당시 남편과 함께 부상자를 구출한 공로로 올해 처음 제정된 '오월 어머니상'을 수상한 성수남(여·59·광주시 서구 화정동)씨가 80년 5월 당시 목숨을 걸고 계엄군의 만행이 담긴 사진을 찍은 남편 고(故) 김영복(5·18 당시 기동병원 사진기자)씨의 '80년 5월 광주'의 필름을 찾기 위해 27년 만에 발굴에 나섰지만, 아쉽게도 무산.

Large advertisement for Joy Travel,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Hainan, Japan, and Europe, along with a list of products and prices.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